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1호 [루게 제26055호] 주제 107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황병서동지, 한평상동지, 김성남동지,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가 동행하였다.

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결사나운 배길과 험한 갈랑길을 헤치시며 신도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로동당 평안북도 위원회 부위원장 리태일동지, 신도군당위원장 김준식동지를 비롯한 도와 군의 책임일꾼들이 격정속에 맞이하였다.

조국의 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신도군은 수수천년 세월을 씻기여 버림받던 이름도 없는 무명평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 화학섬유원료기지로 전면시킬 구상을 안으시고 100여 리 제방을 쌓아 섬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수천정보의 갈밭을 조성하는 웅대한 대자연개조전투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비단섬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갈바다 설레이는 원로 기지로 전변된 영광의 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셨던 신도군갈밭종합농장 갈1분장 14포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여기에 오니 50여년전 이곳에 기록한 발자취를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군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들여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갈에 의한 화학섬유생산을 활성화하자면 신도군을 대규모의 갈생산기지답게 잘 꾸리고 갈밭배를 과학화, 현대화하여 정모당수확고를 높이며 갈수송문제를 해결하여 공장들에 섬유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도군을 주체적인 화학섬유원료기지로 튼튼히



자급자족할수 있는 위력한 생활밀집을 갖춘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군인민병원을 도시의 큰 병원 못지 않게 현대적으로 잘 꾸려주어 자체로 치료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 웬만한 수술도 할수 있도록 의료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군안의 소학교, 중학교들도 잘 지어주어 교육환경과 조건을 일신함으로써 섬사람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하여 군인민병원과 학교들을 우리 나라 보건부문과 교육부문의 전형단위, 표준단위가 되게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여주고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즉석에서 세워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섬에서 사는 군내인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거듭 마을쓰시며 교통조건까지 헤아려 버스뿐만 아니라 륜전기차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 지도를 마치시고 부두로 향하시는 도로에는 어느새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나온 신도군인민들로 인파를 이루었다.

너무도 뜻밖에 최고령도자동지를 뵈은 충격과 기쁨,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터치는 신도군인민들의 열광적인 만세 환호는 온 비단섬을 진감하며 끝없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차창문을 열고 군인민들에게 따뜻한 손저어주시였다.

신도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서해기슭의 한쪽에 있는 자기들의 고장에까지 찾아오시여 불멸의 령도자속을 새기시며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땅이 제시한 갈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꾸리고 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적극 도와주겠다니 갈농사를 잘 지어 최고수확년도의 기록을 정상화하고 앞으로 계속 갈대풍을 안아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갈 생산에서 기계화비율을 높일데 대한 문제, 갈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관수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전력설비와 양수설비를 일신하고 수리정비를 계획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생산된 갈을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갈수송선들을 재정비하고 잘 꾸려줄데 대한 문제, 비료와 농약을 충분히 보장하여 갈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문제, 군안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갈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도군에 매력수가 높은 트랙토르를 비롯한 륜전기차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는 연유와 륜전기차들의 다이야, 부속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전력설비와 양수설비, 팔배와 부선설비를 조사하고 정비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새로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책임적으로 도와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신도군갈밭종합농장 갈1분장 기계화 작업반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농장들에 많은 트랙토르와 농기계, 농기구들을 보장해주고있지만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농기계의 농기구를 소중히 다루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담당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신도군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세심히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군안에 나서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원대한 구상과 승고한 뜻에 의하여 조국의 지도우에 새로 생겨나고 발전하여온 고장인 신도군을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더 잘 꾸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료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경우에 자체의 튼튼한 후방토대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알곡생산을 늘이고 축산기지, 수산기지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것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황병서동지, 한광상동지,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시였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부대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격정과 흥분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교양실, 병실, 세목장, 콩창고, 온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양실에 들리시어 군부대군인들의 교양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지켜선 군부대의 임무상특성에

맞게 정치사상교양과 신념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초소를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근무를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콩창고를 돌아보시면서 군부대의 콩농사실태를 료해하시고 앞선 단위

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콩농사를 잘하는것과 함께 이 군부대와 같이 외진 곳에 떨어져있는 전투단위들에는 콩가공설비들도 잘 차려주어 군인들에게 콩음식을 다양하게

해먹이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실을 돌아보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관하 1116호농장에서 육종한 다수확우량품종의 농작물과 남새작물들을 병영주변에 많이 심고 도입하여 먹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를 찾아주시고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원수님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2)

위대한 전승세대들은 공화국기발을 지켜 이렇게 싸웠다

가렬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3년간을 더듬으며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수혈결사투쟁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무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전승세대들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해 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 서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없었던 우리 어찌 공화국의 70년 역사를 긍지높이 추억할 수 있랴. 전승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영웅적 인민으로 그 이름 떨치게 되었고 우리 나라의 영광의 나라, 기적의 나라로 그 위용 만방에 빛나게 되었다.

스치는 바람결에도 서늘푸른 초장을 비껴보고 노동적이던 인민군용사들의 발구름소리가 실려오는듯싶은 이곳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피감을 안고 돌이켜본다.

가렬치절했던 전쟁의 3년간, 1129일.

공화국기발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고향마을이 해방되어서야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아보게 되었다는 그 할머니는 제법까지 안고온 기발을 병사들에게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화국기발을 가는 곳마다에 휘날려주시우. 공화국을 잃으면 우리 죽은 목숨이여다.》

이렇게 되어 비단천으로 만들어진 공화국기발은 1211고지일 무명고지에 휘날리게 되었고 그후에는 가칠봉습격전에 전제하게 되었다.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을 받아안고 습격전에 나선 병사들은 그 기발을 휘날리며 가칠봉으로 치달아올랐다. 공화국기발을 들고 선두에 섰던 전사자 적편에 맞고 쓰러졌다.

그는 전우들에게 그 기발을 넘겨 주며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세명에서 만만 할머니의 부탁을 잊지 마시오...》

기발을 받아안고 불을 토하는 적 화염을 향해 옥박하던 전사가 또다시 쓰러졌다. 이렇게 적편에 맞아 같이 기발기행기우고 구명했던 공화국기발은 12명의 전사들의 손을 거쳐 가칠봉에 휘날리게 되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피와

생명을 바쳤던가.

그것은 바로 조국이었다. 공화국기발을 지키는것이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형제들을 지키고 조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혈결사투쟁정신에서 제시하신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이고 전면적인 반공격, 전진선에서의 변속타격과 적집단에 대한 포위소멸전, 정규부대들에 의한 적후 제2전선의 형성, 산악전과 야간전, 적극적인 진지방어전과 습격전, 지격수조운동, 산악지대에에서의 포화력의 집중적타격과 이동보병중대활동, 비행기사냥과 조운동, 땅고사냥군조운동 등 주체적인 전략과 전법으로 격전장마다에서 승리를 이룩했다.

싸우는 고지마다에서는 총포성탄 울린것이 아니었다.

인민군용사들은 포탄격자와 불에 타다 남은 나무로 만든 화선악기에 맞추어 절전의 노예, 멸종의 노예를 불렀다. 그 노예소리는 현수들에게 죽음을 더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주었다.

전쟁 3년간의 매일, 매 시각이 바로 이러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져있었다. 그 나날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이 그토록 뜨거워진 것이었다.

농민들도 전식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적의 폭격과 함포사격이 위협이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낮에 밭을 이어 영농작업을 다그쳤다. 농촌들에서는 녀성보장이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주제40(1951)년 11월 22일 일부 당보에는 《강한 농촌전진과 농민들의 농업증산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 그는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교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투쟁한 목표대로 평상모와 목상모 및 물모에서 정량 10이 넘는 이 지대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적 다수확을 올렸다. ... 그는 올해의 고귀한 노력의 열매를 총화짓는 마당에서 잘 여문 벼를 먼저 함곡정신하여 버린물레 87가마니를 국가에 바쳤다. 그리고 조선인민과 더불어 자기를 오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정성을 표시하였다.》

1951년 5월 3일 군위 제18연대 군부대가 소소한 군기금원한 운동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열망하는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전국구호의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에서 많은 군기금원을 헌납하는 애국적소행이 연이어 꽃피어오르며 이 모범을 따라 각 계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벌이었다. 인민들은 적의 야수적폭행으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끊어지는 다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었고 몸으로 다리를 떠받들어 전사수송을 보장하였으며 집에서 쓰던 신발의 판자와 장승까지 뜯어 배와 배를 무가치고 전선에 포탄을 운반하였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지켜 싸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공화국기발이어서 복된 삶을 누려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 인민이 지녔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것인지를 보여 주는 법동농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널리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을 만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밟아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셨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오는 길이라고 대답하셨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캄캄한 밤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 스스로없이 한 말은 신념이요, 그것은 바로 조진인민의 진정이고 신념이었다.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는 남녀로소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병사였고 노수나 방위자들이었다.

현우와의 판가리결전에 누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군상《적계각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두개의 소년백제산이 무어졌다. 적통치기관에 랑홍색공화국기발을 띄우고 희생된 조국희생자위대의 한 소년도 있다.

우리는 공화국기발을 지켜 힘착자들과 피흘려 싸운 나 어린 소년들도 당당한 공화국의 첫 공민들이었다고 말할수있다.

1951년 7월 11일부 《로동신문》은 전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1명의 소년단원에게 국가훈장 제3급, 4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공로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했다. 국가훈장 제 1급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훈장을 수여받은 피용소년단원대원들과 안주탄방소년단원, 조국희생자위대 대원 등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었다.

이런 인민을 누가 당하라, 이런 나라를 누가 정복할수 있랴.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내 조국의 하늘가에 전승의 초목가 려져올랐다. 조선은 이렇게 싸워 승리하였고 조선인민은 이렇게 자기의 존엄과 조국을 지켰다.

※ ※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격렬한 불길속에서 수백명의 공화국영웅이 배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혈결사투쟁의 충신들로 키웠고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공화국기발을 지키고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결사의 각오가 남녀로소모두를 불사신의 영웅이 되게 하였다.

우리 삼가 웃음을 머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연대에 경의를 드린다》를 정중히 모신 《승리》상을 우러러본다.

조국의 자주적존엄과 영예를 목숨 바쳐 지켜낸 전승세대들의 고귀한 믿음이 그대로 있을수록 공화국기발이 인민군용사의 손에서 세차게 나뉘고있다.

전회의 용사들이 피흘려 지켜낸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마다 새긴 영웅적위훈은 또 얼마나 세게 높아올랐던가.

본사기자 신 철

격전장마다에 휘날린 공화국기

1950년 6월 25일, 베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희망으로 가슴부풀던 우리 인민에게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련의 난파도가 들리워졌다.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인민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중선설에 접하고 원수적결의의 성전에 떨치기 시작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목숨보다 귀중한 민족의 존엄과 삶의 비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이었다.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온 해방후 5년간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대일이 소중했기였기에 이 나라의 수많은 아낌없는 손에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전쟁이 일어났지 불과 3-4일 동안에 김일성총장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앞을 닦아 전선에 탄원한 수는 무려 8만명에 달하였다.

당시 평양 7월 1일부 조선중앙통신은 《... 김일성총장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전문학교, 고급중학교, 남녀학생들을 선두로 북한반공, 공작, 방산, 기업소, 총흔들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전선으로 출동할것을 탄원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영웅한 수혈결사투쟁정신에 감응하여 탄원서에서 《...조국의 통일과 완전자주독립을 쟁취하고야말겠다는 자기들의 결의를 펴하고야말겠다.》

전선출발 탄원한 애국청년들은 벌써 8월 1일 8백 58명에 달하고있다.》고 전했다.

우리 인민의 참열정기에 대하여 조선전쟁을 종군한 어느 한 외국지사는 자기의 소책자에 《전쟁이 시작된 최초의 6주사이에 120만명의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 지원부대 또는 빨찌산부대에 탄원하였다.》라고 썼다.

인민군용사들은 공화국기발을 펼 펼 휘날리며 원수를 무찔렀다.

공화국기발, 그것은 곧 어머니조국이었다. 화방이 총현하는 용광로였고 나라에서 부여해준 옥답이었다. 행복찬 생활의 전부였다.

공화국기발이 휘날리는 곳마다에서 세인의 예상을 뒤집어엎는 군사적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 기적의 창조자들은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아온

행복의 5년을 목숨바쳐 지키리라. 이 맹세를 안고 그들은 승리를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쳤다.

우리의 눈가에 군상 《락동강도하 전투》가 숨얼얼 안겨온다.

공화국기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병사, 적들을 쓸어버리는 중기사수와 부사수, 적병영을 사격하는 기총수... 락동강에 흐르던 물이었던가 퍼였던가.

여기에 우박처럼 쏟아지는 탄우속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전우들을 승리로 인도한 한 전사가 남긴 마지막담방구 있다.

《이 공화국기발을 부탁하오. 끝까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오.》

전사가 남긴 그날의 담방을 심장으로 돌리며 우리는 군상 《1211고지방위자들》이라고 다가가다. 인민군용사들이 탄약상자의 기름배인 종이무에 한자한자 적어나가던 맹세들의 굴절이 우리의 눈앞에 여러 번 울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 이시어!》

원수들은 악착스럽게 달려들고있습다.

허나 항일의 전통을 이은 우리는 비록 몸이 천포각만조각나는 한이 있어도 한눈의 적도 물러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죽어 물결 땅은 있어도 살아 물결 땅은 한치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습다.

장군님의 전사들이 서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이 맹세문을 가슴마다에 새기고 인민군용사들은 고지를 지켜서왔다.

가칠봉에 휘날렸던 공화국기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1951년 초여름,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지침에 따라 전진동투로 행군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한 구분대가 제정군의 한 농촌마을에서 잠시 휴식하고 출발전비를 시두르고있을 때였다. 한 할머니가 한쪽의

공화국기발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고향마을이 해방되어서야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아보게 되었다는 그 할머니는 제법까지 안고온 기발을 병사들에게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화국기발을 가는 곳마다에 휘날려주시우. 공화국을 잃으면 우리 죽은 목숨이여다.》

이렇게 되어 비단천으로 만들어진 공화국기발은 1211고지일 무명고지에 휘날리게 되었고 그후에는 가칠봉습격전에 전제하게 되었다.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을 받아안고 습격전에 나선 병사들은 그 기발을 휘날리며 가칠봉으로 치달아올랐다. 공화국기발을 들고 선두에 섰던 전사자 적편에 맞고 쓰러졌다.

그는 전우들에게 그 기발을 넘겨 주며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세명에서 만만 할머니의 부탁을 잊지 마시오...》

기발을 받아안고 불을 토하는 적 화염을 향해 옥박하던 전사가 또다시 쓰러졌다. 이렇게 적편에 맞아 같이 기발기행기우고 구명했던 공화국기발은 12명의 전사들의 손을 거쳐 가칠봉에 휘날리게 되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피와

생명을 바쳤던가.

그것은 바로 조국이었다. 공화국기발을 지키는것이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형제들을 지키고 조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혈결사투쟁정신에서 제시하신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이고 전면적인 반공격, 전진선에서의 변속타격과 적집단에 대한 포위소멸전, 정규부대들에 의한 적후 제2전선의 형성, 산악전과 야간전, 적극적인 진지방어전과 습격전, 지격수조운동, 산악지대에에서의 포화력의 집중적타격과 이동보병중대활동, 비행기사냥과 조운동, 땅고사냥군조운동 등 주체적인 전략과 전법으로 격전장마다에서 승리를 이룩했다.

싸우는 고지마다에서는 총포성탄 울린것이 아니었다.

인민군용사들은 포탄격자와 불에 타다 남은 나무로 만든 화선악기에 맞추어 절전의 노예, 멸종의 노예를 불렀다. 그 노예소리는 현수들에게 죽음을 더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주었다.

전쟁 3년간의 매일, 매 시각이 바로 이러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져있었다. 그 나날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이 그토록 뜨거워진 것이었다.

농민들도 전식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적의 폭격과 함포사격이 위협이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낮에 밭을 이어 영농작업을 다그쳤다. 농촌들에서는 녀성보장이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주제40(1951)년 11월 22일 일부 당보에는 《강한 농촌전진과 농민들의 농업증산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 그는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교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투쟁한 목표대로 평상모와 목상모 및 물모에서 정량 10이 넘는 이 지대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적 다수확을 올렸다. ... 그는 올해의 고귀한 노력의 열매를 총화짓는 마당에서 잘 여문 벼를 먼저 함곡정신하여 버린물레 87가마니를 국가에 바쳤다. 그리고 조선인민과 더불어 자기를 오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정성을 표시하였다.》

1951년 5월 3일 군위 제18연대 군부대가 소소한 군기금원한 운동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열망하는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전국구호의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에서 많은 군기금원을 헌납하는 애국적소행이 연이어 꽃피어오르며 이 모범을 따라 각 계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벌이었다. 인민들은 적의 야수적폭행으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끊어지는 다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었고 몸으로 다리를 떠받들어 전사수송을 보장하였으며 집에서 쓰던 신발의 판자와 장승까지 뜯어 배와 배를 무가치고 전선에 포탄을 운반하였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지켜 싸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공화국기발이어서 복된 삶을 누려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 인민이 지녔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것인지를 보여 주는 법동농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널리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을 만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밟아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셨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오는 길이라고 대답하셨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캄캄한 밤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 스스로없이 한 말은 신념이요, 그것은 바로 조진인민의 진정이고 신념이었다.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는 남녀로소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병사였고 노수나 방위자들이었다.

현우와의 판가리결전에 누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군상《적계각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공화국의 첫 공민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강호한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침략자들에게 무리들을 안긴 인민들, 그들은 다름 아닌 공화국의 첫 공민들이었다.

해방된 나라였고 주인이 없었던것이 막고의 피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인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배양되었던 나라를 되찾고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참된 삶을 누려가는 나날에 인민정권만이 자기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을 안겨줄수 있다는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공화국민이라는 이 부름을 지켜 산악군이 밀려왔다.

군상 《후방인민들의 전선원호》에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공화국기발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고향마을이 해방되어서야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아보게 되었다는 그 할머니는 제법까지 안고온 기발을 병사들에게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화국기발을 가는 곳마다에 휘날려주시우. 공화국을 잃으면 우리 죽은 목숨이여다.》

이렇게 되어 비단천으로 만들어진 공화국기발은 1211고지일 무명고지에 휘날리게 되었고 그후에는 가칠봉습격전에 전제하게 되었다.

사연깊은 공화국기발을 받아안고 습격전에 나선 병사들은 그 기발을 휘날리며 가칠봉으로 치달아올랐다. 공화국기발을 들고 선두에 섰던 전사자 적편에 맞고 쓰러졌다.

그는 전우들에게 그 기발을 넘겨 주며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세명에서 만만 할머니의 부탁을 잊지 마시오...》

기발을 받아안고 불을 토하는 적 화염을 향해 옥박하던 전사가 또다시 쓰러졌다. 이렇게 적편에 맞아 같이 기발기행기우고 구명했던 공화국기발은 12명의 전사들의 손을 거쳐 가칠봉에 휘날리게 되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피와

생명을 바쳤던가.

그것은 바로 조국이었다. 공화국기발을 지키는것이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형제들을 지키고 조국을 수호하는 길임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혈결사투쟁정신에서 제시하신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이고 전면적인 반공격, 전진선에서의 변속타격과 적집단에 대한 포위소멸전, 정규부대들에 의한 적후 제2전선의 형성, 산악전과 야간전, 적극적인 진지방어전과 습격전, 지격수조운동, 산악지대에에서의 포화력의 집중적타격과 이동보병중대활동, 비행기사냥과 조운동, 땅고사냥군조운동 등 주체적인 전략과 전법으로 격전장마다에서 승리를 이룩했다.

싸우는 고지마다에서는 총포성탄 울린것이 아니었다.

인민군용사들은 포탄격자와 불에 타다 남은 나무로 만든 화선악기에 맞추어 절전의 노예, 멸종의 노예를 불렀다. 그 노예소리는 현수들에게 죽음을 더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주었다.

전쟁 3년간의 매일, 매 시각이 바로 이러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져있었다. 그 나날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이 그토록 뜨거워진 것이었다.

농민들도 전식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적의 폭격과 함포사격이 위협이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낮에 밭을 이어 영농작업을 다그쳤다. 농촌들에서는 녀성보장이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주제40(1951)년 11월 22일 일부 당보에는 《강한 농촌전진과 농민들의 농업증산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 그는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교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투쟁한 목표대로 평상모와 목상모 및 물모에서 정량 10이 넘는 이 지대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적 다수확을 올렸다. ... 그는 올해의 고귀한 노력의 열매를 총화짓는 마당에서 잘 여문 벼를 먼저 함곡정신하여 버린물레 87가마니를 국가에 바쳤다. 그리고 조선인민과 더불어 자기를 오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정성을 표시하였다.》

1951년 5월 3일 군위 제18연대 군부대가 소소한 군기금원한 운동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열망하는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전국구호의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에서 많은 군기금원을 헌납하는 애국적소행이 연이어 꽃피어오르며 이 모범을 따라 각 계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벌이었다. 인민들은 적의 야수적폭행으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끊어지는 다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었고 몸으로 다리를 떠받들어 전사수송을 보장하였으며 집에서 쓰던 신발의 판자와 장승까지 뜯어 배와 배를 무가치고 전선에 포탄을 운반하였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지켜 싸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공화국기발이어서 복된 삶을 누려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 인민이 지녔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것인지를 보여 주는 법동농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널리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을 만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밟아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셨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오는 길이라고 대답하셨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캄캄한 밤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 스스로없이 한 말은 신념이요, 그것은 바로 조진인민의 진정이고 신념이었다.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는 남녀로소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병사였고 노수나 방위자들이었다.

현우와의 판가리결전에 누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군상《적계각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벌이었다. 인민들은 적의 야수적폭행으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끊어지는 다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었고 몸으로 다리를 떠받들어 전사수송을 보장하였으며 집에서 쓰던 신발의 판자와 장승까지 뜯어 배와 배를 무가치고 전선에 포탄을 운반하였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지켜 싸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공화국기발이어서 복된 삶을 누려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 인민이 지녔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것인지를 보여 주는 법동농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널리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을 만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밟아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셨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오는 길이라고 대답하셨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캄캄한 밤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 스스로없이 한 말은 신념이요, 그것은 바로 조진인민의 진정이고 신념이었다.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는 남녀로소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병사였고 노수나 방위자들이었다.

현우와의 판가리결전에 누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군상《적계각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벌이었다. 인민들은 적의 야수적폭행으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끊어지는 다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었고 몸으로 다리를 떠받들어 전사수송을 보장하였으며 집에서 쓰던 신발의 판자와 장승까지 뜯어 배와 배를 무가치고 전선에 포탄을 운반하였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지켜 싸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공화국기발이어서 복된 삶을 누려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 인민이 지녔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것인지를 보여 주는 법동농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널리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고개길에서 한 농민을 만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밟아 어디로 가는가고 물으셨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오는 길이라고 대답하셨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캄캄한 밤 이 나라의 평범한 농민이 스스로없이 한 말은 신념이요, 그것은 바로 조진인민의 진정이고 신념이었다.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는 남녀로소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병사였고 노수나 방위자들이었다.

현우와의 판가리결전에 누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군상《적계각층 인민들이 앞을 닦아 나가 참가하였다.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의 미진인 우리 공화국을 시수하기 위해 바늘을 꺼꾸로 돌려놓으며 24시간 고대없이 일하였고 밀려드는 강을 이겨내기 위해 눈에 나무꼬챙이를 뿔처럼 찌고 신발을 돌렸다. 희생된 동지의 몸에 바친듯 피관을 얹어 놓고 《피는 피로써 갚자!》고 부르짖으며 충신을 작았다.》

우리의 귀재는 전회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군자리의 지해방기공장을 찾은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장애인들, 새겨진 한명한명의 모습에는 판가리 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가 있었었다.

인민군용사에게 박격포와 포탄을 넘겨주는 저 로동자가 좁은 공간안에 딱 한 화약가스도 하여 사격수가 앞을 가려보지 못하게 되자 자기 신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 폐막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이 폐막되었다.

용접공, 제판공, 주물공, 미장공 직종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견제없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기대회가 참가자들은 대고조준기에서 탄탄한 기술능력과 집단주의정신, 끈진 일송세를 발휘하며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용접공, 제판공경기 참가한 기능공들은 대상공사에서 이전 시기 많은 로력으로 여러달동안에 수행하였던 공사량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놀라운 혁신을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이 폐막되었다.

용접공, 제판공, 주물공, 미장공 직종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견제없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기대회가 참가자들은 대고조준기에서 탄탄한 기술능력과 집단주의정신, 끈진 일송세를 발휘하며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용접공, 제판공경기 참가한 기능공들은 대상공사에서 이전 시기 많은 로력으로 여러달동안에 수행하였던 공사량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놀라운 혁신을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이 폐막되었다.

용접공, 제판공, 주물공, 미장공 직종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견제없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기대회가 참가자들은 대고조준기에서 탄탄한 기술능력과 집단주의정신, 끈진 일송세를 발휘하며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용접공, 제판공경기 참가한 기능공들은 대상공사에서 이전 시기 많은 로력으로 여러달동안에 수행하였던 공사량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놀라운 혁신을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이 폐막되었다.

용접공, 제판공, 주물공, 미장공 직종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견제없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기대회가 참가자들은 대고조준기에서 탄탄한 기술능력과 집단주의정신, 끈진 일송세를 발휘하며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용접공, 제판공경기 참가한 기능공들은 대상공사에서 이전 시기 많은 로력으로 여러달동안에 수행하였던 공사량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놀라운 혁신을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이 폐막되었다.

용접공, 제판공, 주물공, 미장공 직종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견제없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기대회가 참가자들은 대고조준기에서 탄탄한 기술능력과 집단주의정신, 끈진 일송세를 발휘하며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용접공, 제판공경기 참가한 기능공들은 대상공사에서 이전 시기 많은 로력으로 여러달동안에 수행하였던 공사량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놀라운 혁신을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이 폐막되었다.

용접공, 제판공, 주물공, 미장공 직종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견제없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기대회가 참가자들은 대고조준기에서 탄탄한 기술능력과 집단주의정신, 끈진 일송세를 발휘하며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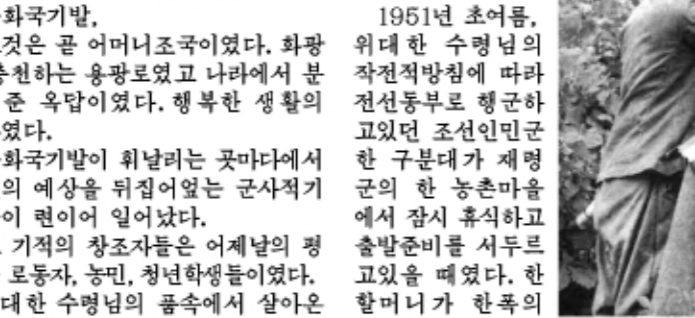
용접공, 제판공경기 참가한 기능공들은 대상공사에서 이전 시기 많은 로력으로 여러달동안에 수행하였던 공사량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놀라운 혁신을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경기대회-2018》이 폐막되었다.

용접공, 제판공, 주물공, 미장공 직종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의 기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건설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견제없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기대회가 참가자들은 대고조준기에서 탄탄한 기술능력과 집단주의정신, 끈진 일송세를 발휘하며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용접공, 제판공경기 참가한 기능공들은 대상공사에서 이전 시기 많은 로력으로 여러달동안에 수행하였던 공사량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놀라운 혁신을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려 사회주의바다향기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자

서 해 중 심 어 장 에 서

떠나갈 땐 빈배, 돌아올 땐 배전에 넘친다

가마포수산업소 운반선 11701호를 타고

동승기

우리는 지금 가마포수산업소 지휘선의 갑판위에 서있다. 창조와 혁신으로 수놓아질 중심어장에서의 새날은 유다란 정서를 자아낸다.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아침해가 솟아오르자 물면을 박차며 바다새들이 날아오른다.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서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의 수많은 고기배들이 한벌씩 튀어오르며, 불등어처럼 뿔뿔이 갈라지는 아침해에 의하여 금빛을 띠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동승기에서 내려와서 보니,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아침해가 솟아오르자 물면을 박차며 바다새들이 날아오른다.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서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의 수많은 고기배들이 한벌씩 튀어오르며, 불등어처럼 뿔뿔이 갈라지는 아침해에 의하여 금빛을 띠는 파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담이 부름이라면 한마을 한뜻으로 뿔뿔이 갈라져 산도 높고 바다도 매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쁨입니다.》

운반작업은 잠은 켜놓고와 가마포를 옮겨주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려가지 현대적인 함석설비들을 갖춘 지휘선의 선장실에 들어서니 새차에 휘몰아치는 과학수산업공을 목격할수 있었다. 이곳에서 서해의 물고기잡이명수로 소문난 강현수기사가 이 대화기로 능숙하게 운반작업을 지휘한다.

《고기배별 어획고를 보고 할것.》

이어 15척의 작업선들에서 생산량보고 전과를 타고 연방 날아온다.

《한기방에 2기방 잡았다.》, 《선장에 물고기 넘쳐나게 쌓인다. 운반선을 보내라.》

기사의 작업복을 보거나 또 다시 전과를 타고 날아온다.

《운반선들은 각기 작업선들과 협동하여 하선작업에 착수할것.》

해풍에 그늘린 기사장의 구리빛의 얼굴에 흐르는 표정이 비근다. 그의 한손에는 쌍안경이 다른 손에는 대화기가 쥐어져있다. 지휘선과 가까이 있는 작업

선들의 어로공들이 운반선을 부르는 모습도 확연하게 안겨온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느라니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절로 흘러나온다.

우리와 동승의 길을 이어가며 날바다에서 며칠을 보낸 김성철 지휘선은 운반선들을 손저어 제 임은 어로공들은 자제를 낚고 인명하게 움직인다. 잠시후 선장의 담판 구령이 울린다.

《속으로 전진, 전수, 선미 작 준비!》

《속으로 전진, 전수, 선미 작 준비!》

이러니 운반선들이 두 배를 편경하는 일은 조연히 일어난다.

하나 조라를 한 두 선장의 능숙한 손재주에 의해 두 배가 순조롭게 편경된다.

이 어로공들이 서로 협동하여 하선작업에 진입한다. 겉에 내뿜는 기증기팔이 연방 회전하며 돌아간다. 길인활차고리에 매달린 물고기머리가 울쭍울쭍 허공중에 떠올라 운반선의 어창에 폭포처럼 쏟아져내린다. 어창에 물고기가 순식간에 가득가득 차오른다.

갑판에 쌓이는 물고기들을 보고 배전을 스칠듯 날아오는 갈대기들, 불이 번쩍 나게 일출을 다그치는 어로공들, 펄떡소문난 김금주사원이 《바다 만풍가》의 선창을 번다. 어로공들이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더욱 성

지휘선에 실린 물고기를 잠깐 사이에 옮겨질 운반선이 물감을 날리며 작업선들을 향하여 쾅쾅하게 달린다. 파도가 덮쳐올 때마다 산산이 부서진 물보라가 새차에 휘몰아친다. 앞뒤로 뒤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뿔뿔이 갈라지는 구명조끼를 입은 어로공들은 자제를 낚고 인명하게 움직인다. 잠시후 선장의 담판 구령이 울린다.

《속으로 전진, 전수, 선미 작 준비!》

《속으로 전진, 전수, 선미 작 준비!》

이러니 운반선들이 두 배를 편경하는 일은 조연히 일어난다.

하나 조라를 한 두 선장의 능숙한 손재주에 의해 두 배가 순조롭게 편경된다.

이 어로공들이 서로 협동하여 하선작업에 진입한다. 겉에 내뿜는 기증기팔이 연방 회전하며 돌아간다. 길인활차고리에 매달린 물고기머리가 울쭍울쭍 허공중에 떠올라 운반선의 어창에 폭포처럼 쏟아져내린다. 어창에 물고기가 순식간에 가득가득 차오른다.

갑판에 쌓이는 물고기들을 보고 배전을 스칠듯 날아오는 갈대기들, 불이 번쩍 나게 일출을 다그치는 어로공들, 펄떡소문난 김금주사원이 《바다 만풍가》의 선창을 번다. 어로공들이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더욱 성

수가 나서 일출을 다그친다.

하선작업을 끝낸 운반선이 다른 작업선으로 도파시 기동한다. 서해의 물고기잡이들의 작업선에 가깝게 접근할수록 배전이 넘치게 물고기가 실린것이다 보인다.

그들을 향해 배머리를 추켜든 운반선 11701호가 서해의 푸른 물을 헤가르며 전속으로 달린다. 이어 편속적인 하선작업이 진행된다. 반복적인 작업과정에 운반선의 선체가 떠나올 때보다 1m나 물면에 깊숙이 박힌다. 어창에도 갑판에도 물고기가 가득히 실린것이다.

김성철지휘선은 하루 사업소적인 어획량은 수백에 달한다고 하면서 그 비결은 서해중심어장에서 집중적인 어로전투에 앞서 기관장학습반, 선장학습반, 어로공학습반을 조직하여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키고 배수리와 어구준비를 면밀하게 짜고뎠다고 공언하며 자랑한다.

어느덧 어러치의 작업선들에 대한 하선작업이 전부 끝나자 최영철선장의 기쁨에 넘친 구령소리가 울린다.

《기관 시동, 귀항!》

통-통-통

떠나갈 때보다 선수가 1m나 물면에 깊숙이 박힌 운반선 11701호가 부두를 향하여 무겁게 출발한다. 수심의 물고기를 실은 운반선의 배기관이 무겁게 울을 쓴다. 그 무게가 온몸에 느껴진다.

수많은 고기배들도 뿔뿔이 갈라지는 중심어장을 점점 멀어지고 정장은 포구가 가까워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핵심어장을 향하여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이는 과정에

문덕수산업소에서 최근년간 자체 물집 트레이터를 튼튼히 갖추고 과학적인 어로전투를 벌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계속 돌파하고있다. 올해 서해중심어장에서 기록되고있는 실적도 높다.

성파의 밀바람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어구의 표준화를 실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동지께서 신념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사업소의 일군들과 선장장, 선장들은 년초에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어떻게 하면 낚기는 올해에 보다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할수 있는 방도에 하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그들의 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었다.

사실 지난 시기 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배우에서도 성과를 거두어오른 과학적인 어로전투를 전개하는데도 일련의 경험을 쌓았다고 볼수 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최근 몇해동안의 어로전투과정을 깊이 분석하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물고기잡이배 중

중 어구가 못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어로전투를 벌리는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고기잡이들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그물에서 이상현상이 생기는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중전에 사업소에서는 배 고기배들에 예비고물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사업도 내밀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상현상을 계속 극복하기가 어려웠다. 하여 중심어장에서 집중어로전투를 벌리는 기간에는 사업소의 어구작업반 선원들이 현지에 달려나가 어구수리를 하곤 하였지만 발물에 떨어진 불이나 고는 소망대식일본세였다. 어구수리 시간이 늘어나면 물고기잡이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자명한 리치이다. 때문에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림피화지배인은 그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물고기잡이배에 표준화되지 못한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세한 파도를 비롯하여 어로전투과정에 부당하게 되는 여러가지 정황에 걸릴수 있는 표준화된 그물을 모든 고기배들에 갖추어주는것, 이것은 더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할수 있는 방도에 하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그들의 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었다.

우선 기술과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감방식을 내놓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지난 시기 물고기잡이에서의 경험과 교훈들이 충분히 참고되었다.

일군들은 이 안감방식의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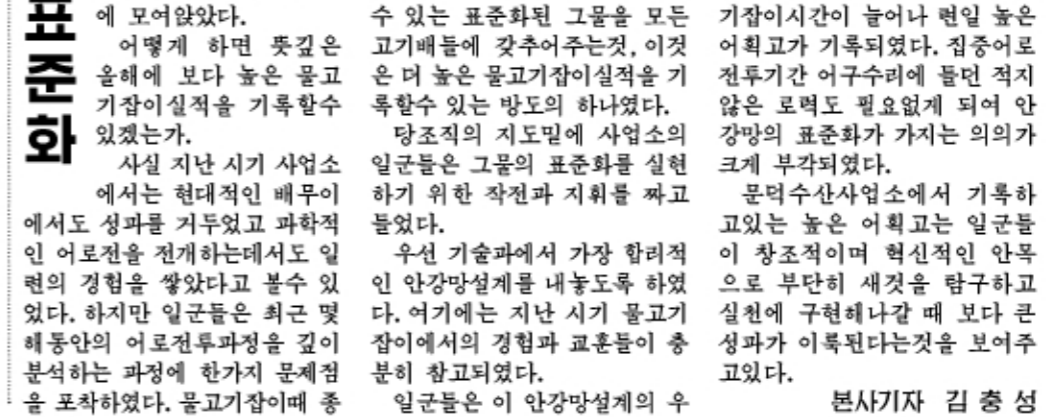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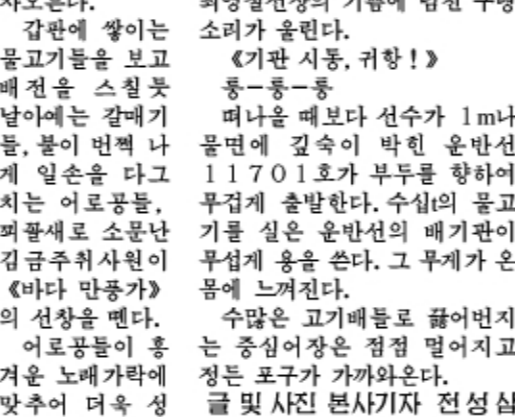
점을 선단장들과 선장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제너들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선뜻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선장들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모든 고기배들에 표준화된 안감방을 도입하는것이 어구가 못쓰게 되는 현상을 극복 하고 어획고를 높이며 경영활동에도 리익이 된다는것을 하나하나 조리있게 설명해주었다.

그후 지배인을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표준화된 안감방을 새로 제작하거나 종전의 안감방을 새 설계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체보장을 위해 발이 달도록 뛰어들었다. 짧은 기간에 그물을 새로 제작하고 개조하기 위해 일군들과 작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되었다.

결과 사업소에서는 몇달 안되는 기간에 모든 고기배들에 표준화된 안감방을 도입하였다. 림없는 사선준비법에 서해 중심어장으로 진출하던 지난 시기 종종 나타나곤 하던 이상현상이 극력 줄어든 반면에 물고기잡이시간이 늘어나 림이 높은 어획고가 기록되었다. 집중어로전투기간 어구수리에 들던 적지 않은 로병도 필요없게 되어 안감방의 표준화가 가져오는 의의가 크게 부각되었다.

문덕수산업소에서 기록하고있는 높은 어획고는 일군들이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안목으로 부단히 새것을 탐구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갈 때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현지 보도

해상지휘소에서의 한시간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서해중심어장의 포구에 위치한 해상지휘소이다.

출렁이는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로 나가는 고기배들과 선장이 넘쳐나고 물고기를 실고 포구로 들어서는 운반선들, 적제함마다 물고기를 가득 실고 편이 부두를 떠나는 자동차들이 이곳에서는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뜻이 높고 뜨겁고 신장같이 떨쳐나선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혁신의 기상을 한눈에 그려볼수 있다.

그 호탕한 포구의 광경을 마주한 우리에게 동행한 수산성 일군은 이야기한다.

《중심어장 하선작업을 진행 하고있는데, 우리에겐 제일 기쁘면서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해상지휘선으로부터 들려오는 운반선들과 거기에 실려있는 물고기방이 대화기를 타고 계속 울려나온다.

《해상지휘소, L-운-116

99호 50t, L-운-117 96호 48t의 물고기를 실고 포구로 떠났다.》

《떠나갈 때보다 선수가 1m나 물면에 깊숙이 박힌 운반선 11701호가 부두를 향하여 무겁게 출발한다. 수심의 물고기를 실은 운반선의 배기관이 무겁게 울을 쓴다. 그 무게가 온몸에 느껴진다.》

수많은 고기배들도 뿔뿔이 갈라지는 중심어장을 점점 멀어지고 정장은 포구가 가까워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서해중심어장의 포구에 위치한 해상지휘소이다.

출렁이는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로 나가는 고기배들과 선장이 넘쳐나고 물고기를 실고 포구로 들어서는 운반선들, 적제함마다 물고기를 가득 실고 편이 부두를 떠나는 자동차들이 이곳에서는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뜻이 높고 뜨겁고 신장같이 떨쳐나선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혁신의 기상을 한눈에 그려볼수 있다.

그 호탕한 포구의 광경을 마주한 우리에게 동행한 수산성 일군은 이야기한다.

《중심어장 하선작업을 진행 하고있는데, 우리에겐 제일 기쁘면서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해상지휘선으로부터 들려오는 운반선들과 거기에 실려있는 물고기방이 대화기를 타고 계속 울려나온다.

《해상지휘소, L-운-116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서해중심어장의 포구에 위치한 해상지휘소이다.

출렁이는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로 나가는 고기배들과 선장이 넘쳐나고 물고기를 실고 포구로 들어서는 운반선들, 적제함마다 물고기를 가득 실고 편이 부두를 떠나는 자동차들이 이곳에서는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뜻이 높고 뜨겁고 신장같이 떨쳐나선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혁신의 기상을 한눈에 그려볼수 있다.

그 호탕한 포구의 광경을 마주한 우리에게 동행한 수산성 일군은 이야기한다.

《중심어장 하선작업을 진행 하고있는데, 우리에겐 제일 기쁘면서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해상지휘선으로부터 들려오는 운반선들과 거기에 실려있는 물고기방이 대화기를 타고 계속 울려나온다.

《해상지휘소, L-운-116

과학수산업자 물고기잡이실적

평원 수산 사업소에서

이러한 어로전투조직은 선장들의 높은 과학기술적의 안감함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여기에 이곳 일군들은 어항기에 과학기술보급사업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뎠다. 여기서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초한 과학적인 어로전투를 벌일수 있게 선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었다.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물의시행과 특성에서의 가장적인 그물조각방법들을 모두 손에 꼭 익히도록 하는 사업은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는데서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집중적인 어로전투기간 유

이러한 어로전투조직은 선장들의 높은 과학기술적의 안감함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여기에 이곳 일군들은 어항기에 과학기술보급사업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뎠다. 여기서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초한 과학적인 어로전투를 벌일수 있게 선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었다.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물의시행과 특성에서의 가장적인 그물조각방법들을 모두 손에 꼭 익히도록 하는 사업은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는데서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집중적인 어로전투기간 유

이러한 어로전투조직은 선장들의 높은 과학기술적의 안감함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여기에 이곳 일군들은 어항기에 과학기술보급사업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뎠다. 여기서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초한 과학적인 어로전투를 벌일수 있게 선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었다.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물의시행과 특성에서의 가장적인 그물조각방법들을 모두 손에 꼭 익히도록 하는 사업은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는데서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집중적인 어로전투기간 유

이러한 어로전투조직은 선장들의 높은 과학기술적의 안감함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여기에 이곳 일군들은 어항기에 과학기술보급사업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뎠다. 여기서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방법과 그에 기초한 과학적인 어로전투를 벌일수 있게 선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었다.

물온도전송설비를 리용하는 물의시행과 특성에서의 가장적인 그물조각방법들을 모두 손에 꼭 익히도록 하는 사업은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는데서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집중적인 어로전투기간 유

혁명의 성지에 바쳐 가는 뜨거운 진정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김정애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

